

2026년 9월 7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매크로 민감도 상승 국면에서의 대응 전략

이번 주 코스피는 1) 지난 금요일 미국 8월 비농업 고용 결과, 2) 미국 8월 CPI, PPI 등 인플레이션 지표, 3) 미 10년물 국채 금리 향방, 4) 오라클, 어도비 등 미국 테크기업 실적, 5)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등에 영향받을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400~7,050pt).

8월 고용 서프라이즈는 잭슨홀 미팅에서 위시 의장이 강조한 고용 안정만 재확인해준 결과였다고 판단. 앞으로 매크로 지표 상 연준과 시장의 주된 초점은 인플레이션 향방으로 좁혀졌으며, 이는 8월 CPI 결과의 중요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 일단 시장의 인플레이션 눈높이가 높아졌음을 고려 시, 컨센 부합에 하는 수준의 결과만 나오더라도 증시에서는 안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최근 미국 장기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변동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민감도 역시 증가한 만큼,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발 일시적인 수급 변동성 확대 속 8월 CPI 사전 경계심리 확산으로 눈치보기 장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



퀀트/자산배분 최재원
cjw5056@kiwoom.com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4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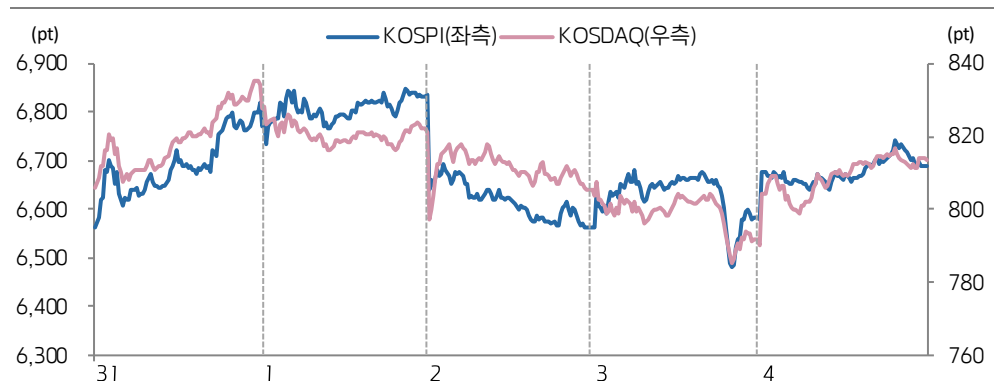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발 수급에도 미·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와 국제유가·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마감 (KOSPI -1.50%, KOSDAQ -2.97%)

주 초반에는 미국 금리 상승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약세로 하락 출발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에 따른 수급 유입과 HBM 관련 기대가 반도체 대형주를 지지하면서 코스피가 장중 낙폭을 만회해 상승 전환함. 이후에도 자사주 매입 수급을 중심으로 지수 하단이 지지됐으나, 주 중반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재차 고조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됨. 국제유가와 미국 장기금리가 동반 상승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원 안팎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4% 가까이 급락해 6,500선까지 후퇴함. 다만 주 후반에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가 진정되고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됨. 이에 외국인과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동반 순매수로 전환 마감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반등하면서 코스피는 6,600선을 회복했으며 코스닥도 반도체 장비·로봇·바이오를 중심으로 낙폭을 일부 만회함.

대외적으로는 미·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과 이에 따른 국제유가·미국 장기금리 움직임이 한 주간 시장 방향을 좌우함. 반도체 HBM 모멘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은 지수 하단을 지지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기조가 주 중반까지 지속된 가운데 중동 리스크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주중 낙폭이 크게 확대됨.

업종별로 의료/정밀기기(+3.38%), 종이/목재(+0.56%), 운송/창고(+0.16%), 금융(+0.15%), 부동산(+0.11%)이 상대적 강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7.08%), 금속(-5.87%), 기계/장비(-4.62%), 운송장비/부품(-4.48%), 일반서비스(-3.63%)는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2조 5,365억 원)은 금속(-1,030억원), 기계/장비(-943억원), 건설(-885억원), 일반서비스(-689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8,701억 원)은 증권(-734억원), IT서비스(-589억원), 통신(-584억원), 건설(-557억원)순으로 순매도.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6년 9월 7일

KIWOOM WEEKLY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9월 7일	월	EU	GDP 성장률 (YoY, 최종치)	2 분기	1.0%	1.0%
		휴장	미국(노동절)		-	-
9월 8일	화	한국	GDP 성장률 (YoY, 최종치)	2 분기	3.7%	3.6%
			GDP 성장률 (QoQ, 최종치)	2 분기	0.6%	0.6%
		일본	GDP 성장률 (QoQ, 최종치)	2 분기	0.4%	0.5%
		중국	무역수지	8 월	\$123.30B	\$112.50B
		미국	NFIB 소기업 낙관지수	8 월	99.2	99.8
9월 9일	수	중국	CPI (YoY)	8 월	0.9%	0.5%
			PPI (YoY)	8 월	3.7%	3.5%
		한국	실업률	8 월	-	2.8%
		행사	K-배터리		-	-
		공개	애플 신제품 공개 (아이폰 18)		-	-
9월 10일	목	미국	PPI (YoY)	8 월	5.2%	4.7%
			근원 PPI (YoY)	8 월	4.6%	4.2%
			PPI (MoM)	8 월	0.4%	0.0%
			근원 PPI (MoM)	8 월	0.3%	0.2%
		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	-
		증시	한국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		-	-
9월 11일	금	한국	~10 일까지 수출 (YoY)	9 월	-	45.3%
			~10 일까지 수입 (YoY)	9 월	-	23.1%
		미국	CPI (YoY)	8 월	3.4%	3.4%
			근원 CPI (YoY)	8 월	2.4%	2.5%
			CPI (MoM)	8 월	0.4%	0.1%
			근원 CPI (MoM)	8 월	0.2%	0.2%
			미시간 소비자심리지수 (잠정)	9 월	51.0	51.7
			미시간 1 년 기대 인플레이션 (잠정)	9 월	-	4.0%
		실적	어도비, 오라클		-	-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지난 금요일 미국 8월 비농업 고용 결과, 2) 미국 8월 CPI, PPI 등 인플레이션 지표, 3) 미 10년물 국채 금리 향방, 4) 오라클, 어도비 등 미국 테크기업 실적, 5)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등에 영향 받을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400~7,050pt).

4일(금) 미국 증시는 8월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에도, 미 10년물 금리 상승 제한 속 오픈 AI의 GPT-6 아스트라 공개 이후 AI 수요 모멘텀 재부각으로 마이크론(+6.1%), 샌디스크(+11.9%) 등 반도체주가 랠리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제한(다우 -0.5%, S&P500 -0.4%, 나스닥 -0.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

미국의 8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16.2만건으로 컨센(+5.5만건)을 대폭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지난 7월 고용(-2.3만건 -) +2.1만건)도 플러스로 상향되는 등 전반적인 고용 둔화 우려가 크게 완화된 모습. 이 같은 결과는 "Good is bad(지표 호조로 인한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로 해석될 법 했음.

그러나 이날 미국 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는 점이나,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단 저항을 받았다는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증시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악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이번 신규 고용 증가의 상당부분은 숙박 및 음식료(+5.9만), 지방정부 교육(+4.2만) 등 계절성이 큰 업종이 주도했다는 점이나, 임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시간당 평균임금 MoM +0.3% vs 컨센 +0.3%)도 크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더욱이 8월 고용 발표 이후에도 FedWatch상 9월 인상 확률이 급등하지 않고 기존 5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 결국,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는 잭스홀 미팅에서 워시 의장이 강조한 고용 안정만 재확인해준 결과였다고 판단. 앞으로 매크로 지표 상 연준과 시장의 주된 초점은 인플레이션 향방으로 좁혀졌으며, 이는 8월 CPI 결과의 중요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국시간 금요일 밤 9시 30분 발표).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상 헤드라인과 코어 CPI는 전년동월대비 기준 각각 3.4%(YoY vs 7월 3.4%), 2.4%(YoY vs 컨센 2.5%)로 형성되는 등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물론 8월 중 미-이란 군사충돌 재개로 인한 유가 부담이 공존하는 구간이므로, 전월비 헤드라인 CPI 상승률(MoM 컨센 +0.4% vs 7월 +0.1%)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

일단 시장의 인플레이션 눈높이가 높아졌음을 고려 시, 컨센 부합에 하는 수준의 결과만 나오더라도 증시에서는 안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최근 미국 장기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변동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민감도 역시 증가한 만큼,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발 일시적인 수급 변동성 확대 속 8월 CPI 사전 경계심리 확산으로 눈치보기 장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는 오라클 실적(한국시간 금요일 새벽 5시 이후 발표)이 반도체를 포함한 코스피 주가 향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벤트에 해당. 오라클 주가는 연초 이후 약 18% 넘게 하락했지만, 9월 이후 6%대 반등을 시현하면서, AI 수요와 클라우드 사업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낙폭을 만회해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번 실적은 최근 주가 반등이 단순 낙폭과대성 되돌림인지, AI 투자 및 신용리스크 우려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대가 될 전망.

2026년 9월 7일

KIWOOM WEEKLY

지난 브로드컴, 엔비디아 실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AI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전환되는지와 같은 검증 작업이 오라클 실적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임. 동시에 최근 미국 장기 금리 급등 사태와 맞물린 AI 인프라 업체들의 CDS 프리미엄 상승이 불안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연관해서 볼 필요. 이를 고려 시, 대규모 수주잔고(RPO)의 매출 전환, CAPEX 투자금액 변화, 자금 조달 계획, FCF 개선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예정.

결과적으로 주 후반에 몰려 있는 미국발 이벤트를 치르면서 시장의 수싸움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 그럼에도 지난 금요일 미국 반도체주 랠리가 시사하듯이, 국내외 반도체주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 압력도 소진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오라클 실적, 8월 CPI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난주보다 증시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는 경로를 베이스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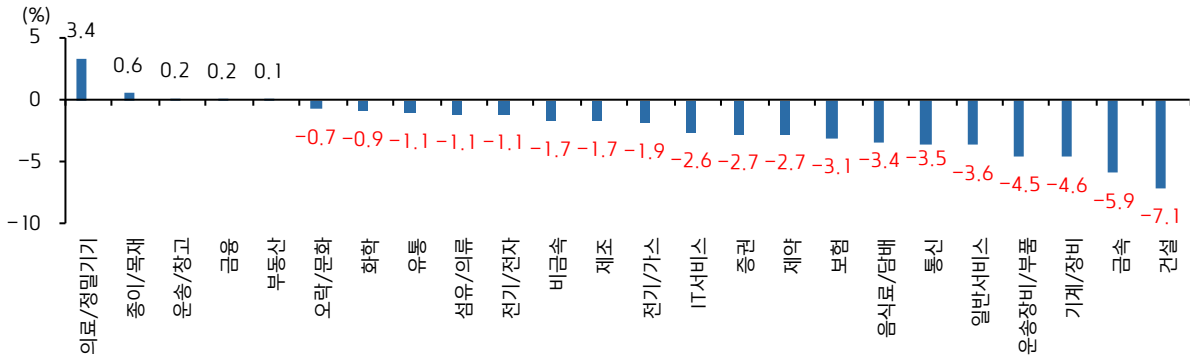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6,687.21	1.6	-1.5	5.2	58.7
대형주	7,299.44	1.8	-1.4	5.0	66.8
중형주	4,057.00	0.1	-3.0	6.8	9.0
소형주	2,404.14	0.7	-1.0	6.1	-4.5
코스피 200	1,051.52	1.8	-1.3	5.2	73.5
코스닥	813.50	3.0	-3.0	4.2	-12.1
대형주	1,999.44	3.7	-4.1	4.1	-11.2
중형주	835.98	2.5	-2.3	4.6	-7.1
소형주	2,326.13	1.5	-0.8	5.0	-9.6
코스닥 150	1,393.11	3.5	-4.5	4.1	-10.0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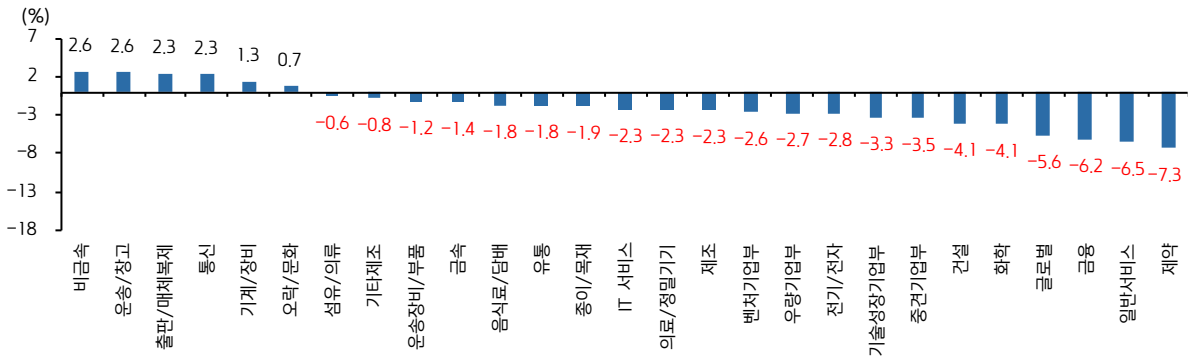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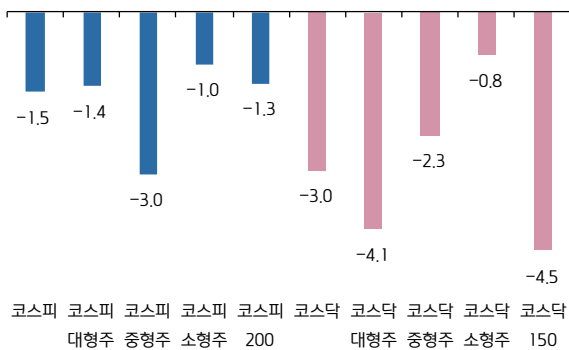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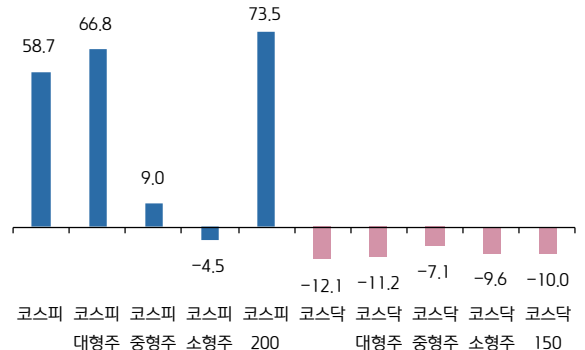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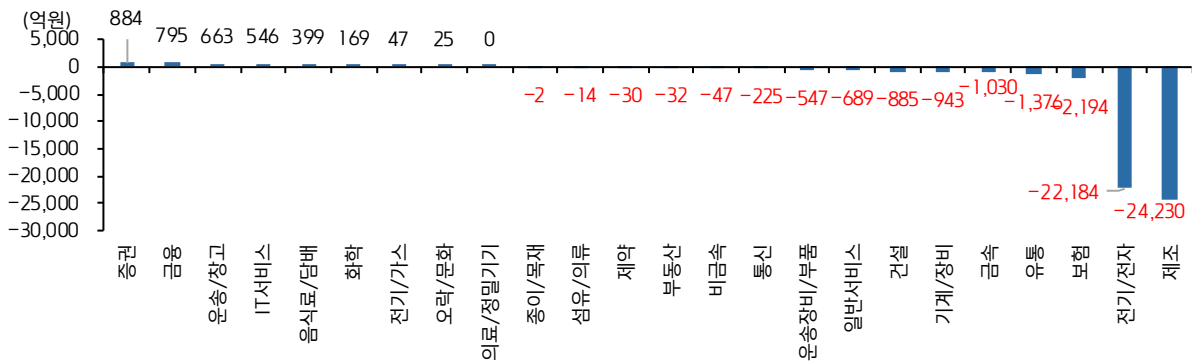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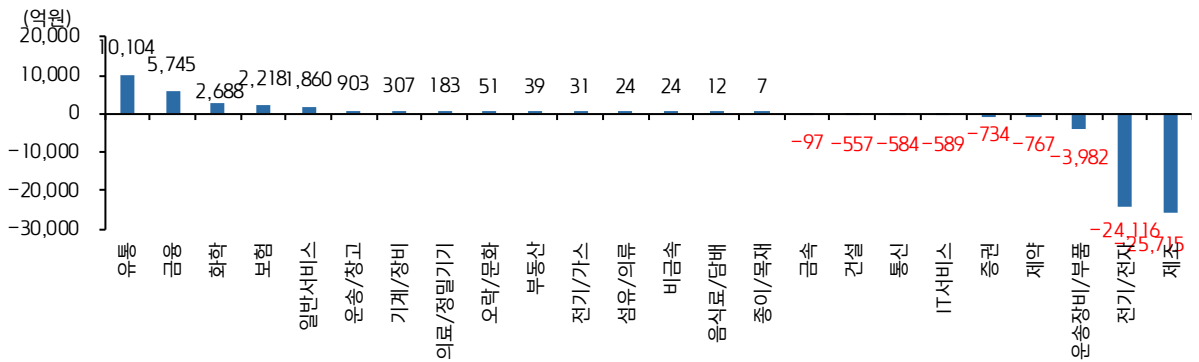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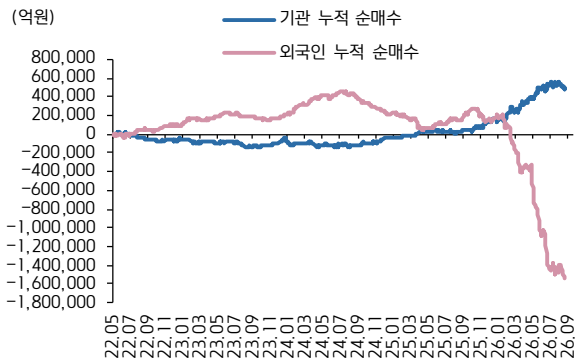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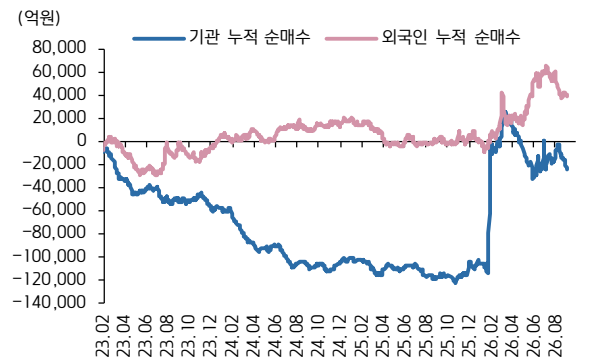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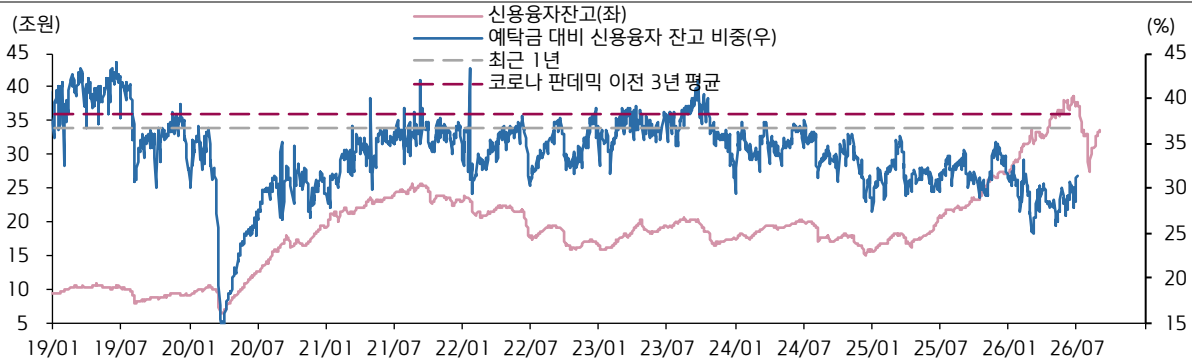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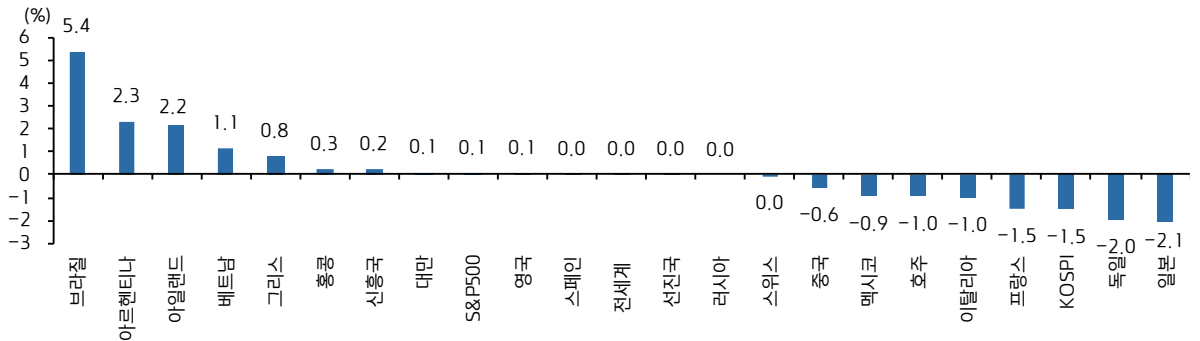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KOSDAQ 신용유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유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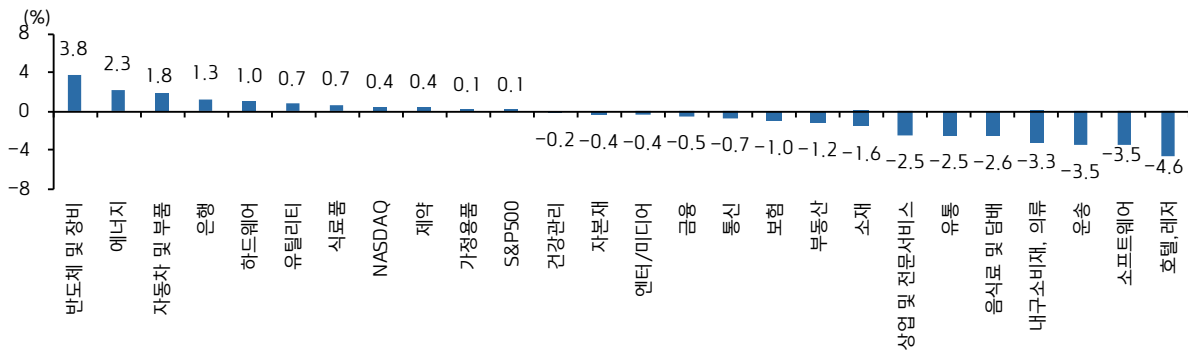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